



ISSUE BRIEFING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연구책임 전희진 연구위원

이슈브리핑 vol.283

연구진 전아람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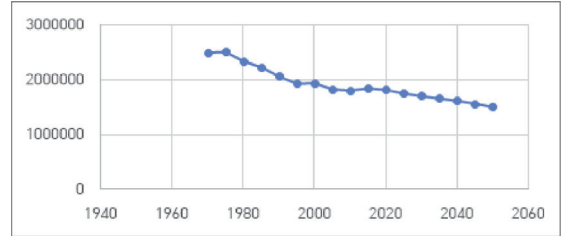
전라북도의 인구 위기
지역이민정책의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인구 확대 방안 1: 고등학교 유학생 중심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인구 확대 방안 2: 청년 인구의 댐, 외국인 대학생 확대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인구 확대 방안 3: 지역특화형 광역비자
기대와 우리의 자세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I 전라북도의 인구 위기

1. 전북 광역소멸 위기

-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통계청 미래인구 예측에 따르면 1970년 249만명이던 인구가, 2050년 150만명 이하로 추정됨



〈그림 1〉 전라북도 인구 추이(1970~2050), 통계청

-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2023년 6월 기준)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0~59세까지가 57.43%인데 비해, 전북은 51.50%로 5.93%p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국적으로 60세 이상 인구비는 26.80%이나, 전북은 32.54%로 5.74%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 대비 인구의 노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젊은 세대의 인구 구성비가 낮아, 원활한 인력 수급이나 미래의 인구 증가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표 1〉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인구 및 구성비 (2023.06)

(단위 : 명, %)

| | | 남성 | | 여성 | | 연령별 총인구 | 총 인구 연령별 구성비 |
|----|--------|------------|--------|------------|--------|------------|-----------------|
| | | N | % | N | % | | |
| 전국 | 전체 | 25,607,244 | 100.00 | 25,785,501 | 100.00 | 51,392,745 | 100.00 |
| | 0 ~ 9세 | 1,758,737 | 6.87 | 1,673,173 | 6.49 | 3,431,910 | 6.68 |
| | 10~19세 | 2,408,005 | 9.40 | 2,267,995 | 8.80 | 4,676,000 | 9.10 |
| | 20~29세 | 3,295,951 | 12.87 | 3,005,950 | 11.66 | 6,301,901 | 12.26 |
| | 30~39세 | 3,422,241 | 13.36 | 3,166,311 | 12.28 | 6,588,552 | 12.82 |
| | 40~49세 | 4,063,995 | 15.87 | 3,934,080 | 15.26 | 7,998,075 | 15.56 |
| | 50~59세 | 4,355,551 | 17.01 | 4,271,633 | 16.57 | 8,627,184 | 16.79 |
| | 60~69세 | 3,714,622 | 14.51 | 3,839,260 | 14.89 | 7,553,882 | 14.70 |
| | 70~79세 | 1,782,427 | 6.96 | 2,112,063 | 8.19 | 3,894,490 | 7.58 |
| | 80세 이상 | 805,715 | 3.15 | 1,515,036 | 5.88 | 2,320,751 | 4.52 |
| 전북 | 전체 | 876,978 | 100.00 | 885,043 | 100.00 | 1,762,021 | 100.00 |
| | 0 ~ 9세 | 54,290 | 6.19 | 51,989 | 5.87 | 106,279 | 6.03 |
| | 10~19세 | 85,676 | 9.77 | 79,846 | 9.02 | 165,522 | 9.39 |
| | 20~29세 | 105,345 | 12.01 | 88,728 | 10.03 | 194,073 | 11.01 |
| | 30~39세 | 90,429 | 10.31 | 83,832 | 9.47 | 174,261 | 9.89 |
| | 40~49세 | 127,911 | 14.59 | 121,604 | 13.74 | 249,515 | 14.16 |
| | 50~59세 | 155,420 | 17.72 | 143,611 | 16.23 | 299,031 | 16.97 |
| | 60~69세 | 140,764 | 16.05 | 141,676 | 16.01 | 282,440 | 16.03 |
| | 70~79세 | 77,510 | 8.84 | 92,123 | 10.41 | 169,633 | 9.63 |
| | 80세 이상 | 39,633 | 4.52 | 81,634 | 9.22 | 121,267 | 6.88 |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23년도 6월

- 전국과 전북의 합계출산율, 출생건수, 조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의 감소폭보다 전북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출생건수의 경우 2000년 대비 2022년 전국은 61.1% 감소하였으나, 전북은 72.2%로 더 큰 감소를 보이고 있음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표 2〉 전국 및 전라북도 합계출산율, 출생건수 및 조출생률

(단위 : 명, %, ‰p)

| |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2021 | 2022 | 증감률 |
|----|-------|---------|---------|---------|---------|---------|---------|---------|--------|
| 전국 | 합계출산율 | 1.480 | 1.085 | 1.226 | 1.239 | 0.837 | 0.808 | 0.780 | -0.7 |
| | 출생건수 | 640,089 | 438,707 | 470,171 | 438,420 | 272,337 | 260,562 | 249,000 | -61.1 |
| | 조출생률 | 13.5 | 9.0 | 9.4 | 8.6 | 5.3 | 5.1 | 4.9 | -8.6 |
| 전북 | 합계출산율 | 1.595 | 1.184 | 1.374 | 1.352 | 0.909 | 0.850 | 0.820 | -0.775 |
| | 출생건수 | 25,173 | 15,745 | 16,100 | 14,087 | 8,165 | 7,475 | 7,000 | -72.2 |
| | 조출생률 | 12.6 | 8.3 | 8.7 | 7.6 | 4.5 | 4.2 | 4.0 | -8.6 |

주 : 2022년 수치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2.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 전라북도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2023. 1. 17)이 통과됨
- 특별법안 마련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전으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행복 증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SOC 구축이나 금융 및 투자 촉진환경 조성 등의 기반 마련이 필요
- 특히, 생명경제도시 수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민 및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전북 인구 확대가 필요



〈그림 2〉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체계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II 지역이민정책의 필요

1. 중앙정부 외국인 정책의 변화

- (장소기반 경제이민정책) 국제적으로도 국가 내 지역 간 생산성 불균형의 문제에 대응할 정책 방향이 장소기반(Place-based)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고, 지역의 정책적 수요에 따라 이민 규모의 조절 필요성이 대두
- (지역특화형 비자) 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여,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시행 중
- (시범사업의 목적)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함
- (시범사업의 절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 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 심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
- (시범사업의 운영방안)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으로 인구감소 지역 외국인 주민 확보와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설명회 자료

〈그림 3〉 지역특화비자의 대상 및 제도

- (유학 제도 내실화) 유학생 유치 확대와 한국사회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비자 발급 재정 능력 심사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유학 병행,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 다양화, 시간제 취업제도 개선 등의 제도를 시행
- 2027년까지 30만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유치-학업-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원 방안 마련
-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신설로 새로운 유학수요를 창출하고, 해외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하여 유학수요 발굴 및 유치 지원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2. 해외 지역이민 성공 사례: 캐나다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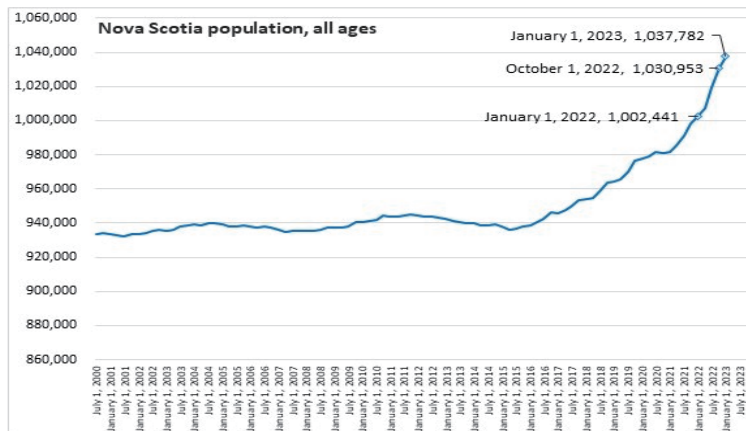
- 캐나다는 애틀란틱 시범사업(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을 통해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고숙련직업군 프로그램, 중숙련직업군 프로그램, 유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영주권 부여
- 캐나다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의 경우 2011년 948,000명으로 인구의 정점을 기록했으나, 그 이후 인구가 지속 감소하여 2038년 926,000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노바스코샤 신경제 건설위원회는 보다 나은 미래의 노바스코샤를 위해 19개의 혁신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중 인구목표는 3가지임
- 인구목표: 지역 간 이주, 국제이민, 외국인 유학생 유지로 설정

■ 지역 간 이주(Inter-Provincial Migration): 연간 평균 1,000명의 노동 연령인구의 순증가 목표

■ 국제이민 (International Immigration): 연 2,400명 규모의 영주권자를 7,000명 수준으로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유지(Reten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노바스코샤 주 소재 대학, 이 지역의 교육 및 훈련 기관을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연평균 10%가 노바스코샤 주의 지역 영주권자로 전환하여 지역에 거주 (목표 수립 당시의 비율의 두 배)

- 결과: 2022년 노바스코샤는 12,650명의 영주권자를 맞이했고, 이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수치임. 이 계획의 성공에 따라 노바스코샤의 인구는 2015년을 저점으로 반등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 중



출처: Nova Scotia Canada, Finance and Treasury Board 홈페이지

〈그림 4〉 노바스코샤 주의 인구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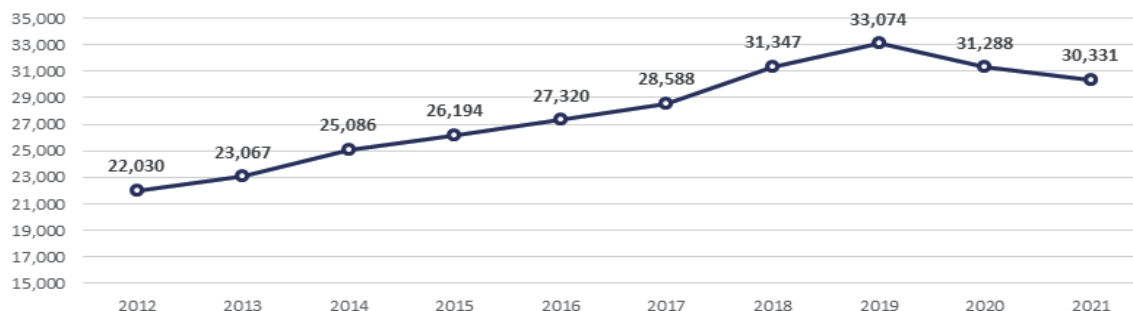
- 호주의 경우 역시 고용주 추천을 기반으로 발급되는 ‘고용주 추천 고숙련 기술자 지역비자’(SESR: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Visa)나 ‘지역거주 주민이나 지방정부 추천에 따른 고숙련 기술자 지역 비자’(SWRP: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등이 시행 중임

3. 전라북도의 외국인 현황

- 전라북도의 외국인 인구는 2012년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2개년 연속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소로 추정됨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 2012~2019년 전라북도 외국인 인구는 연평균 약 6%의 증가율을 보임



출처 :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각년도

〈그림 5〉 전라북도 연도별 외국인 인구

〈표 3〉 전라북도 연도별 외국인 인구

(단위: 명, %)

| 연도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인 구 | 22,030 | 23,067 | 25,086 | 26,194 | 27,320 | 28,588 | 31,347 | 33,074 | 31,288 | 30,331 |
| 증 감 | - | 1,037 | 2,019 | 1,108 | 1,126 | 1,268 | 2,759 | 1,727 | -1,786 | -957 |
| 증감률 | - | 4.71 | 8.75 | 4.42 | 4.30 | 4.64 | 9.65 | 5.51 | -5.40 | -3.06 |

출처 :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각년도

전라북도 연령별, 지역별 외국인 인구

- 전라북도 등록외국인 중 유소년인구는 전체의 2.5% 정도이며, 생산가능인구가 96.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고령인구는 1.4%에 불과함
- 외국인 정책은 전라북도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 작동 가능

〈표 4〉 전라북도 연령별, 지역별 외국인 인구 (2021년)

(단위: 명)

| 구분 | 계 | 유소년 (0~14) | 생산가능 (15~64) | | | | 고령 (65세 이상) |
|------|--------|---------------|-----------------|--------|--------|--------|----------------|
| | | | | 15~24세 | 25~49세 | 50~64세 | |
| 전라북도 | 30,331 | 773 | 29,148 | 7,347 | 18,414 | 3,387 | 410 |
| 전주시 | 8,901 | 326 | 8,475 | 3,353 | 4,398 | 724 | 100 |
| 군산시 | 5,822 | 151 | 5,568 | 1,029 | 3,855 | 684 | 103 |
| 익산시 | 4,459 | 123 | 4,258 | 873 | 2,803 | 582 | 78 |
| 정읍시 | 2,480 | 50 | 2,397 | 582 | 1,534 | 281 | 33 |
| 남원시 | 888 | 28 | 844 | 78 | 578 | 188 | 16 |
| 김제시 | 1,742 | 18 | 1,711 | 139 | 1,386 | 186 | 13 |
| 완주군 | 3,009 | 45 | 2,951 | 1,082 | 1,659 | 210 | 13 |
| 진안군 | 322 | 6 | 306 | 36 | 200 | 70 | 10 |
| 무주군 | 192 | 1 | 184 | 13 | 130 | 41 | 7 |
| 장수군 | 324 | 4 | 315 | 32 | 212 | 71 | 5 |
| 임실군 | 273 | 1 | 267 | 27 | 193 | 47 | 5 |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 구분 | 계 | 유소년 (0~14) | 생산가능 (15~64) | | | | 고령 (65세 이상) |
|-----|-----|---------------|-----------------|--------|--------|--------|----------------|
| | | | | 15~24세 | 25~49세 | 50~64세 | |
| 순창군 | 313 | 6 | 303 | 16 | 219 | 68 | 4 |
| 고창군 | 814 | 8 | 799 | 41 | 633 | 125 | 7 |
| 부안군 | 792 | 6 | 770 | 46 | 614 | 110 | 16 |

출처 :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각년도

전라북도 체류자격별 외국인 인구

- 전라북도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한 결과, 2021년 기준 취업체류자가 31.0%로 가장 많았고, 유학 및 연수체류자가 28.9%, 결혼이민체류자 16.0%, 방문동거 및 동반체류자가 9.4%로 나타남
- 취업자 중 전문인력은 전체 등록외국인의 3.1%였으며 기업투자 및 무역경영으로 분류되는 체류자는 약 75명으로 나타남. 또한 체류자의 자녀 및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소지한 방문동거 및 동반체류자는 2,850명(9.4%)임
 - 2021년 취업체류자는 2020년 대비 8.0% 감소하였으나, 교수·강사 등 전문인력은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고, 유학 및 연수체류자 역시 2.7% 증가함
 - 방문동거 및 동반체류자는 14.9% 감소하였고, 단순기능인력은 9.3% 감소함

〈표 5〉 전라북도 체류자격별 외국인 인구수

(단위: 명, %)

| 구분 | 2020년 | | 2021년 | | 증감 | |
|-------------|--------|-------|--------|-------|------|-------|
| | 인구수 | 구성비 | 인구수 | 구성비 | 증감 | 증감률 |
| 등록외국인 | 31,288 | 100.0 | 30,331 | 100.0 | -957 | -3.1 |
| 취업 | 10,222 | 32.7 | 9,405 | 31.0 | -817 | -8.0 |
| 전문인력 | 879 | 2.8 | 934 | 3.1 | 55 | 6.3 |
| 단순기능인력 | 9,343 | 29.9 | 8,471 | 27.9 | -872 | -9.3 |
| 유학 및 연수 | 8,553 | 27.3 | 8,780 | 28.9 | 227 | 2.7 |
| 결혼이민 | 4,922 | 15.7 | 4,847 | 16.0 | -75 | -1.5 |
| 영주 및 거주 | 2,532 | 8.1 | 2,525 | 8.3 | -7 | -0.3 |
| 기업투자 및 무역경영 | 76 | 0.2 | 75 | 0.2 | -1 | -1.3 |
| 방문동거 및 동반 | 3,350 | 10.7 | 2,850 | 9.4 | -500 | -14.9 |
| 기타 | 1,633 | 5.2 | 1,849 | 6.1 | 216 | 13.2 |

출처 :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각년도

III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인구 확대 방안 1: 고등학교 유학생 중심

1.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 전북지역 내 직업교육 특성화고는 24개, 마이스터고는 4개가 있고, 약 7,4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임
- 다문화 학생 수는 총 학생 수의 3.4% 수준임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표 6〉 전라북도 직업교육 특성학교 현황(2022)

(단위: 개소, 명)

| | 학교수 | 농업계열 | 공업계열 | 상업계열 | 가사 및 실업계열 | 학생수 | 입학자수 | 다문화 학생 수 |
|-----|-----|------|------|------|--------------|-------|-------|-------------|
| 계 | 24 | 6 | 10 | 4 | 4 | 6,069 | 1,956 | 207 |
| 전주시 | 4 | 1 | 1 | 2 | 0 | 1,932 | 644 | 40 |
| 군산시 | 2 | 0 | 0 | 2 | 0 | 693 | 217 | 17 |
| 익산시 | 2 | 0 | 1 | 0 | 1 | 707 | 228 | 23 |
| 정읍시 | 3 | 1 | 1 | 0 | 1 | 421 | 125 | 25 |
| 남원시 | 2 | 1 | 0 | 0 | 1 | 370 | 109 | 17 |
| 김제시 | 1 | 0 | 0 | 0 | 1 | 436 | 159 | 17 |
| 완주군 | 2 | 0 | 2 | 0 | 0 | 329 | 97 | 12 |
| 진안군 | 2 | 1 | 1 | 0 | 0 | 308 | 100 | 4 |
| 무주군 | 0 | 0 | 0 | 0 | 0 | 0 | 0 | 0 |
| 장수군 | 1 | 0 | 1 | 0 | 0 | 118 | 36 | 22 |
| 임실군 | 2 | 1 | 1 | 0 | 0 | 122 | 37 | 7 |
| 순창군 | 0 | 0 | 0 | 0 | 0 | 0 | 0 | 0 |
| 고창군 | 1 | 0 | 1 | 0 | 0 | 476 | 160 | 17 |
| 부안군 | 2 | 1 | 1 | 0 | 0 | 157 | 44 | 6 |

자료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통계상세조회

(https://www.jbe.go.kr/open/board/list.jbe?boardId=BBS_0000499&menuCd=DOM_000001003002005000&contentsSid=2612&cpath=%2Fopen&cpath=%2Fopen)

〈표 7〉 전라북도 마이스터고 학생 현황

(단위: 개소, 명)

| 학교명 | 계열 | 학급수 | 학생수 |
|---------------|----|-----|-----|
|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 공업 | 39 | 680 |
|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 공업 | 18 | 316 |
|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 농업 | 15 | 266 |
|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 농업 | 6 | 88 |

주 : 2023년 3월 1일 기준

자료 :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직업계고 안내 (https://www.jbe.go.kr/job/index.jbe?menuCd=DOM_000001502002003000)

-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는 전형을 신설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 기술 습득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이차전지 등 신기술 영역의 산업체 유치로 노동력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 필요
- 고등학생 유학생의 생활 보장을 위해 학교 내 기숙시설 및 외국인 유학생 대상 거주 공간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
 - 전북도 차원에서 도내 유희공간 및 지역 내 대학교 기숙사, 학교 주변의 주택과의 계약 등을 통해 거주시설 제공
- 고등학교 유학생의 생활 안정과 졸업 이후 취업 및 지역 정착을 위해 부모 동반 허용이 가능하면, 고등학교 유학생의 미래 인력 확보에 더하여 가족 구성원의 이주 역시 가능
- 신기술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적합한 영역의 일자리에 대한 교육 제공 및 졸업 이후 취업 알선까지 연계하여 제공 필요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 고등학교 유학생의 적극적인 입학은 단순히 입학생 수의 양적 확대만이 아닌 학교 교육시스템 자체에서 외국 유학생에 대한 교육 보장과 언어교육 등의 조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 고등학생 유학생 유치 방안 중 하나로 현재 미등록청소년이 출국 및 재입국을 통해 비자를 받고 합법화한 거주와 졸업 이후의 취업까지 연계되면, 실제 미등록 문제 해결도 가능한 인구정책으로 작동 가능

2. 글로벌 국제학교

- 새만금 지역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새만금 지역을 기반으로 영재교육, 글로벌 교육, 과학창의, K-Pop 등의 개성을 가진 학교 건립을 통해 국내의 학생만이 아닌 외국 학생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외국 교육기관 모델처럼 외국의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교육하는 전북형 국제학교의 설립을 통해 지역 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만이 아닌 아시아 전역을 비롯하여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국제학교 진학 가능
- 외국인 포함하는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해서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등의 제도 개선이 요청됨

IV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인구 확대 방안 2: 청년 인구의 댐, 외국인 대학생 확대 방안

1. 중앙정부 차원의 유학생 지역 정착 유도

-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안(23.7.3)을 시행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23. 8. 17)을 발표
-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제정 능력 심사기준 완화
 -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기준 완화
 -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 가능: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의 직업 전문성 확대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취득 기대
 -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 다양화
 - 시간취업제도 개선: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완화, 방학 중 전문 분야 인턴 활용,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시 시간제 취업 허가 면제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학업 및 진로설계까지 단계별 전략 수립
- 권역별 한국어센터 지정 운영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강화 및 접근성 확대

2. 전북 차원의 유학생 지역 정착 유도

- 대학은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역할과 대외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교육, 취업 및 정주를 알선하는 인구의 댐 역할을 수행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확대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유치, 학업수행, 취업, 정착 및 사회 통합의 각 단계별 지원 방안 마련이 요청
- (유치단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급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지방 대학의 유학생 적극 유치 및 기업과의 연계 과정 신설 등의 전북 차원 유학생 유치 활동 노력 필요
 - 해외인재 발굴을 위한 전략 지역에 위치한 유학생유치센터와 유학박람회를 통해 전북지역으로의 유입을 확대
 -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입학요건 개선 및 입증방식 다양화를 통한 입학 장벽 완화
 - 전북대의 O2O(Online-to Offline) 국제캠퍼스 혁신안과 같이, 온라인으로 한국어 및 기초교과목을 수강하고 대학에서 오프라인으로 전공교과를 수강하는 방식 등의 적극적인 유치 전략 필요
 - 전북지역 내 한국어센터 운영을 통한 한국어 교육 제공 및 수료자에 대한 지역 내 대학 진학 요건 완화 등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 가능
- (학업단계) 전북의 경우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2. 10. 21)를 통해 도내 생활적응 교육, 유학생 장학금 지원, 생활·법률·국내취업 등 상담지원, 주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유학생들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350,000천원)을 통한 주거비 지원 외에도 지자체 차원의 펀드 조성 및 장학금 지급 등을 활성화할 필요
- (학교생활)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대학 내 행정 시스템이 유학생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개선 필요. 학교 식당에서의 메뉴 선택권 확대, 다양한 종교에 대한 문화 배려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과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태도가 요청됨
- (취업단계) 전북지역 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정보에 대한 접근 경로 확대 및 비자, 보험, 금융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 마련
- (정주자격 부여) 현재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¹⁾ 시행과 같이, 이공계 특성화기관이 부재한 전북에서는 각 대학 내 이공계 분야 석·박사 학위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전북'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실험이 필요
- 동시에 전북지역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율인 인문 사회 분야의 학생들이 지역 내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 마련 노력 요청
- (가족동반 허용 범위 확대) 유학생의 학업 분위기 조성 및 원활한 지역 정착을 위해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동반 허용 범위를 부모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대학생들의 부모 동반은 개별적인 노동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유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의 정착 프로그램 요청
 - 육아 등 재생산 영역에서의 보육이 가족에 기반하고 있어, 한국 내 외국인 친화적인 보육 시스템 제공이 부재한 문제에 대한 가족 단위의 해법으로 작동
- (사회통합)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 확대만이 아닌 전북에 지속적으로 거주, 정착할 수 있는 학교나 지역 차원에서의 정착 프로그램 제공 요청

〈표 8〉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22)

(단위: 명)

| | 학위과정 | | | | 비학위과정 | | |
|---|-------|---------|-----|-------|-------|-------|-------|
| | 계 | 전문학사/학사 | 석사 | 박사 | 계 | 어학연수생 | 기타연수생 |
| 계 | 6,178 | 4,086 | 754 | 1,338 | 1,417 | 1,121 | 296 |

1)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임(우수인재 특별귀화) (2023. 1. 1. 법무부 보도자료)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 | | 학위과정 | | | | 비학위과정 | | |
|-----|-------|-------|---------|-----|-------|-------|-------|-------|
| | | 계 | 전문학사/학사 | 석사 | 박사 | 계 | 어학연수생 | 기타연수생 |
| 학부 | 소계 | 4,086 | 4,086 | 0 | 0 | 1,411 | 1,121 | 290 |
| | 대학 | 3,182 | 3,182 | 0 | 0 | 543 | 262 | 281 |
| | 교육대학 | 0 | 0 | 0 | 0 | 0 | 0 | 0 |
| | 산업대학 | 97 | 97 | 0 | 0 | 76 | 76 | 0 |
| | 전문대학 | 755 | 755 | 0 | 0 | 792 | 783 | 9 |
| | 사이버대학 | 52 | 52 | 0 | 0 | 0 | 0 | 0 |
| 대학원 | 기능대학 | 0 | 0 | 0 | 0 | 0 | 0 | 0 |
| | 소계 | 2,092 | 0 | 754 | 1,338 | 6 | 0 | 6 |
| | 대학원대학 | 1 | 0 | 1 | 0 | 0 | 0 | 0 |
| | 부설대학원 | 2,091 | 0 | 753 | 1,338 | 6 | 0 | 6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V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인구 확대 방안 3: 지역특화형 광역비자

1. 현행지역특화비자

- (국내의 인구 환경 변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 산업·대학 등이 겪는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외국인 유입 및 정착 방안 마련 필요
-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행 중임
- 이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함
- 대상은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이고, 지역 특화 요건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 발급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특화비자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지역이민정책으로 대응하는 첫 사례로, 국가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

2.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지역특화형비자

- (국가 정책의 확대 적용) 2022년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1.1. 시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의 생활인구 확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전북은 광역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전북이민비자 특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법의 확대 적용 및 최초 지역 실험의 구체적 사례로 작동 가능
- (인구감소·지방소멸·초고령사회) 전북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으로 지정
- 인구감소지역(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0개 시군), 관심지역(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표 9〉 인구구조 변화 선정기준별 현황(2021.12 기준)

| | | 인구감소지역 | 지방소멸위험지역 | 초고령사회 진입지역 |
|-------|--------------------|--|--|--|
| 선정 기준 | | 8개 지표에 가중치 적용 |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 (고위험, 0.2 미만, 위험 0.2~0.5 미만) | 총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율 20% 이상 |
| 전북 | 해당지역 수 (총 14개)) | 10개 지역 | 13개 지역 | 12개 지역 |
| | 비율 | 71.4% | 92.9% | 85.7% |
| | 지역명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고위험〉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위험〉 |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 전국 | 해당지역 수 (총 228개) | 89개 | 〈고위험〉 39개 지역 〈위험〉 69개 지역 | 109개 |
| | 비율 | 39.0% | 47.4% | 47.8% |

자료: 박민정 2023 전북특별자치도 핵심특례별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 (지역적합 이민정책 필요)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이민/외국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노동, 산업 상황과 특성이 반영된 이민/외국인(력)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

- (이민자의 실질적 공간: 지역) 외국인/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뿌리내려 사회경제 활동을 하고, 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파급효과가 미치는 공간은 결국 “지역”으로, 체류 외국인/이민자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처우(권리와 의무) 체계 등의 설계 및 통합 노력 역시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그 실질적인 통합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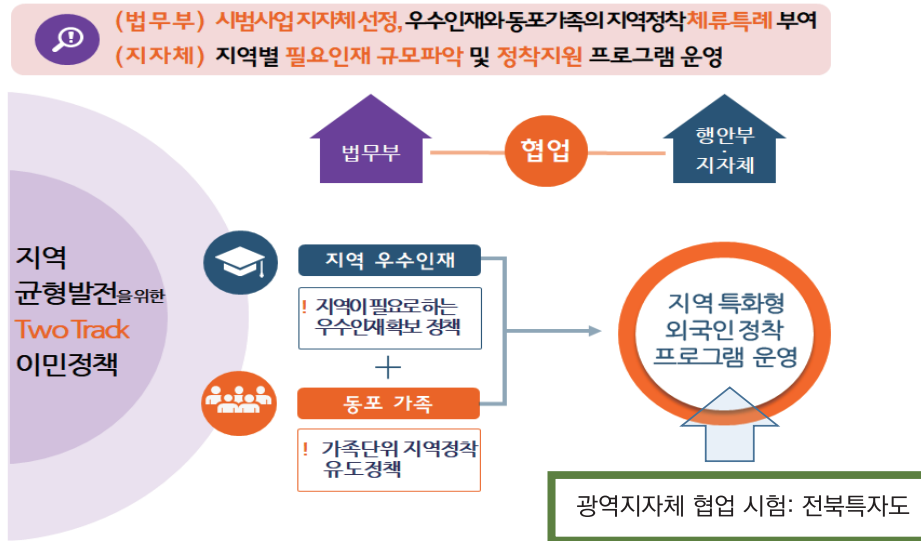


〈그림 6〉 지역특화비자: 인구감소지역에서 전북전역으로

○ (광역단위 지역특화형 비자 실험) 전북지역 인구감소 위기의 광역 단위 해결 및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의 인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청년이민자 및 가족 이민 등을 통한 생활경제인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 (지역 내 기업과 교육기관 연계) 지역 내 유학생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경제진흥원, 상공회의소, 지역 기업체와 대학 간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광역화 모델이 필요
- (구인구직 포털 및 직업훈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인구직정보 교환, 직업훈련 및 교육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의 개입이 필요



자료: 법무부,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실시 보도자료 22. 7. 25 참고

〈그림 7〉 지역특화비자의 전북특별자치도 모델 시험

- (새만금 우수 외국 인력 유치) 새만금을 중심으로 농생명·바이오 산업을 비롯한 세계 기업 유치를 통한 외국 인력의 유입으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
-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지자체 규모의 지역특화형 비자 실험에 있어, 다양한 외국인 구성 및 외국인 정주여건 형성의 집합적 실험공간으로 작동 가능

VI 기대와 우리의 자세

1. 기대효과

- (이민자 양적 증가) 전북지역 이민정책 실행을 통해 지역 외국인의 수적 증가 기대
 - 2020,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수가 감소하였지만, 외국인 이민정책을 개편하여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제공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제도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한 2018년의 경우 전북은 9.65%로 가장 큰 폭의 외국인 수 증가 경험
 - 전북특별법에 따른 외국인 정책 완화 시험으로 10%가량의 외국인 인구 확대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 12월 38,659명의 외국인에서 2040년 195,396명의 외국인 인구 확대 기대 가능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표 10〉 전라북도 외국인 인구 추정

(단위: 명)

| 년도 | 2022.12 기준 | 2024 | 2028 | 2032 | 2036 | 2040 |
|----------------|---------------|--------|--------|--------|---------|---------|
| 전라북도 등록 외국인 | 38,659 | 42,524 | 62,259 | 91,154 | 133,458 | 195,396 |

- (인구 유입 선순환 구조) 지역의 인구감소에 지역 주도적인 인력확보방안 마련으로 외국인의 정착 유도,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지역이민정책 국가적 시행 대비) 중고등 유학생 비자 및 규제 완화, 지역이민자격의 시범사업을 운영 하여, 정책적 경험 축적을 통해 국가적 시행에 대비

2. 이주민 유입을 넘어 같이 사는 사회로

- (이주민 지원 제도 마련) 이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마련이 시급함
- 이주민을 위한 기본 통번역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요청
 - 지역을 소개하거나 공공기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 앱 생산 및 보급
 -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포용성 교육이 필요
 - 도내의 유휴공간이나 대학의 각 시군 캠퍼스를 해당 지역의 이주민 교육 및 정주 공간으로 활용
- (집합적 실험 공간)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이주자에게 기존의 상황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don't ask, don't tell 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증을 제공하여 미등록이나 불법 체류 이주자이지만 지역 사회에 이미 같이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도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실험도 가능
 - 이런 미등록이주민 등록 사업은 캐나다, 미국 사례가 존재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증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및 의료, 교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마련
 - 이주민에게 열린 전북, 인권의 전북 실현 가능

Projected Population Recovery of 2 Million Residents in Jeonbuk Province through Increased Enroll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Heejin Jun, Research Fellow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opulation decline crisis within the Jeonbuk region, introduces strategies to mitigate this trend, and outlines potential pathways for achieving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by implementing regional immigration policies. In response to the proactive measures undertaken by governmental authorities to address population decline and the challenges posed by an aging demographic,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mmigration agency" and the expansion of immigration policies such as the 'pilot visa program' (e.g., 지역특화형비자) along with the relaxation of regulat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students, Jeonbuk similarly necessitates the development of immigration policy initiatives tailored to its diverse constituents, aligning with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region.

The foreign population residing in Jeonbuk exhibited a continuous increase before contract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otably, among the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the working-age population (aged 15-64) constitutes a substantial 96.1%, underscoring the potential efficacy of active immigration policies as viable remedies for the challenges posed by an aging population within Jeonbuk Province.

The enactment of specialized legislation within the immigration domain, concurrent with establishing of th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resents a promising opportunity to diversify and enhance the region's demographic composition. Considering this overarching objective, three pivotal points are proposed.

Firstly, addressing the growing labor demand in emerging technology sectors like secondary batteries necessitates the creation of a tailored curriculum and dedicated facilities to attract international students from technology-specialized high schools within Jeonbuk Province. This comprehensive approach encompasses the provision of targeted technical education and the seamless facilitation of the transition from academia to gainful employment upon graduation. Second, international university students, who constitut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youth demographic, should be offered incentives, including expedited residency pathways for exceptional tal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ird, expanding provisions for accompanying family members, refining support syste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roughout their academic tenure, and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post-graduation employment prospects within the region are all essential in promoting their successful integration and settlement within Jeonbuk.

Additionally, the pilot implementation of regionally customized visa programs, currently underway in regions grappling with population decline, warrants regional-level exploration, specifically within Jeonbuk Province. Proposing a regional model holds the potential to facilitate symbiotic collaborations between indigenous business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Beyond the quantitative augmentation of immigrant inflow through foreign policy strategies, there is an urgent imperative to cultivate a society that fosters harmonious coexistence with immigrants, necessitating enhancements to the overall framework of immigrant support systems.

Key words

Population decline, regional immigration program, international students, harmonious coexistence

iSSUE
BRIEFING vol.283

Projected Population Recovery of 2 Million Residents in Jeonbuk Province through
Increased Enroll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Heejin Jun, Research Fellow



발행인_이남호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

07